

# 강진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 '급상승'

### 전년 동기비 185% 증가하며 매출 102억 돌파...10만명 넘는 고정고객

### 전국 최초 생화 직거래 판매 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

강진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이 작년 5월 대비 185%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군은 2017년 직거래 판매 매출은 79억이었다. 이후 2018년 115억, 2019년 123억으로 해마다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5월 기준 매출 102억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185% 증가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택배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구입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로 평생고객화를 도모해 나가며 직거래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특산물을 구입한 택배 고객을 지역·구입 품목 등으로 분류해 농특산물 홍보나 구입 감사 서한문 발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고정고객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D/B를 직거래 판매



기반으로 삼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화훼 온라인 직거래 판매 또한 큰 주목을 받았다. 군은 행사 취소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기존의 판매방식에서 벗어

나 전국 최초로 온라인 직거래를 시도했다. 생화라는 특성상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강진군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온라인 직거래 판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정식 개장한 강

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다. 가장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출발한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현재 306농가 참여해 420개 품목을 출하해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판매에 불리했던 소규모 작물까지 아우르며 매출 역시 빠르게 성장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10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서울시 동작구와 MOU를 체결하고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품해 농민상생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서울시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공급산지로 선정돼 12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승욱 군수는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강진군 직거래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산 8천5백만원 범위 내 선정

영암군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대상으로 8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2020년 상반기 4억4천5백만원을 들여 313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받아 예산 8천5백만원(약 530대) 범위 내에서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과태료 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및 2002년

이전 제작차량, 배출가스 장치 미개발 차량, 영암군에 연속하여 등록된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의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자 신분증, 중고자동차성능검사기록부 등)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완도 청산도에 전국 최초 해양치유공원 조성

### 다양한 해양자원 이용한 테마형 해양치유 체험 시설 설치

완도군은 지난 1일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양치유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치유공원'은 청산면 신흥리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되며 청산도의 청정 기후와 해수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이용한 테마형 해양치유 체험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해양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치유시설 이용 후 건강 변화를 살펴보는 건강체크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형 체험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해양치유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추진 사항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대표 관광지인 청산도에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치유공원을 지역 내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모범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군은 2019년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 이후 해양치유센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 등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3년간 182억 원을 투입, 완도의 청정 환경과 해양자원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복합하여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 정남진천문과학관

###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장흥군은 정남진천문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과학관 역량 강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0억 원(국비 5억, 군비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지역의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지방과학관의 노후 전시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흥을 포함한 총 4곳이 선정되었다.

2007년 전남 최초로 개관한 정남진천문과학관은 천문과학관 내 노후된 전시 콘텐츠 및 천체망원경을 교체하고, 4차 산업의 기술인 VR, 3D홀로그램, 모션 스캔 인터랙티브 등을 적용한 최신 체험형 전시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천문과학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정남진천문과학관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

### 2년간 정부 지원...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전 기대

진도군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0~2021년 정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축제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갖추고 성장 발전 가능성이 큰 축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정으로 올해부터 2년간 중앙부처 차원의 세계적인 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과 컨설팅, 축제 관광 상품 개발 등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길이 2.8km, 폭 40여m의 바닷길이 열리는 고군면 화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에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있

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국내를 넘어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에 완벽한 축제 준비로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함평천지 농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